

담양군, 청년 지역 정착·공동체 활성화 '시동'

담양군이 청년 주도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청춘부락'과 '청년기획 이음' 회원 등 13명과 함께 공동체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보조금 집행 교육과 청년정책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중 '청춘부락'은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홍보를 위한 장터와 축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린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홍보 장터 운영...문화행사 마련
교육 교구 개발...아동센터·마을학교 등 프로그램 제공

'청년기획 이음'은 담양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교구를 개발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아가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동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동체 활동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개소를 앞둔 청년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청년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 정착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우 기자 lss270@gwangnam.co.kr



담양군이 청년 주도의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공동체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제공=담양군청

고흥,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국민 서비스 개시

숙박·식음료 등 혜택...채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고흥군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 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명예 주민증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광객들은 고흥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후 참여업체와 관광시설에서 QR코드를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에는 총 28개 업체 및 시설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지로 참여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관광·체험시설 6개소, 식음료업체 16개소, 숙박업소 4개소, 쇼핑시설 2개소이다.

대표 혜택으로는 고흥우주별사전망대 VR 체험 1회권 제공,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입장료 50% 할인, 조정

래·조종현·김초혜 가족문학관 입장료 50% 할인, 갑재민속전시관 입장료 50% 할인 등이 있다. 또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기념품을 증정하며, 고흥종합관광안내소와 고흥군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는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활인구 유입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여행 혜택을, 지역에는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 효과를 가져다주는 상생 관광정책"이라며 "많은 분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활용해 우주·섬·바다가 어우러진 고흥만의 매력을 경험하고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강진군민 시낭송 목소리, 음반으로 제작된다

전남음악창작소 '시낭송 음반제작사업' 참가자 모집

강진군에 위치한 전남음악창작소가 지역의 시문학 자원과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융합해 새로운 로컬 오디오 콘텐츠로 확장해 군민의 문화 복지를 높이고, 완성된 기록물은 향후 생활인구 유입을 이끄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https://naver.me/xQJJD601)를 통해 진행되며, 실제 녹음은 26일 전부터 예술인이 아닌 일반 군민과 지역 내 시 낭송 활동가들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의 주체로서 직접 낭송자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강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물론 실질적인 문화 복지 실현과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강진의 문학적 유산을 오디오 콘텐츠로 확장해 군민의 문화 복지를 높이고, 완성된 기록물은 향후 생활인구 유입을 이끄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https://naver.me/xQJJD601)를 통해 진행되며, 실제 녹음은 26일 전부터 예술인이 아닌 일반 군민과 지역 내 시 낭송 활동가들이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의 주체로서 직접 낭송자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강진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물론 실질적인 문화 복지 실현과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강진=이진욱 기자 sa432252@gwangnam.co.kr

'자연 생태계' 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청신호

IUCN 등재 권고...보전가치 높은 세계자연유산 평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무안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권고하면서 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분야 전문기구)이 무안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다. 등재 여부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1월 탄도만과 함평만 갯벌을 대상으로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9월 IUCN 현지실사를 마쳤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IUCN은 무안갯벌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의 핵심 기착지이

자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했다.

특히 탄도만 갯벌은 세계유산인 신안갯벌과 연결된 핵심 생태축으로, 세계적 멸종위기 철새 12종의 주요 서식지로 인정됐다. 함평만 갯벌도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로 평가받았다.

또 무안갯벌은 관광활동의 중심지로서 체계적인 방문객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무안갯벌과 함평만 갯벌이 교육·체험·인식증진 활동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는 무안갯벌의 세계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무안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나주 1박 2득' 3개월 만에 1만명 돌파

여행 중 인센티브 제공...관광객 만족·지역 소비 견인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체류형 관광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 1만명을 돌파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새로운 관광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인 '나주 1박 2득'의 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에서 1박 이상 숙

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최대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물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황포돛배 할인권(50%)과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도 함께 지원한다.

이 사업은 숙박과 관광, 지역 소비를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정책

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주 1박 2득'은 여행 현장에서 인센티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 지급 방식을 도입해 차별화를 꾀했다.

시는 관광객이 여행 중 나주사랑상품권을 받아 음식점과 카페, 체험시설, 전통시장 등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인센티브 지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행 종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상품권을 받는 일반적인 관광 지원 사업과 달리 관광객이 혜택을 즉시 체감하고 지역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신청자 1만명에 따른 직접 관광 소비 효과는 약 6억1000만원 규모로 추산되며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관광지,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영태 시장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 1만명을 넘어선 것은 나주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성공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보성, 북부권 거점 보건지소 운영

4곳 의료취약지 공백 해소

보성군이 북내·겸백·울어·문덕 등 북부 4개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가 운영된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권역형 모델의 중심은 북내보건지소, 북내면을 중심으로 상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나머지 3개 면은 통합형 보건지소 체계로 운영되는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담당한다.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춘 북내보건지소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예방 중심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부권 1차 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이곳엔 인근 면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권역 내 다른 3개 면에서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한다.

보성=박형석 기자 cut@gjdream.com

영암, 갈따구 선제 방역...준설·방제 동시 진행

여름철 불청객인 갈따구의 대량 발생을 막기 위해 영암군이 대대적인 선제 방역에 돌입했다. 단순한 약품 살포를 넘어 막힌 물길을 뚫어내는 준설 작업과 방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방위적 대응이다.

행정 부서 간의 협력이 이번 방제 작업의 핵심이다. 건설교통과가 지역 내 읍·면 소재지의 우수관로에 쌓인 찌꺼기를 긁어내면, 영암군보건의소가 유충 제거 약품을 투입해 생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로는 유기물과 퇴적물이 쉽게 쌓여 갈따구 유충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 같은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준설차로 오염 물질을 청소한 뒤, 살수차를 동원해 약품을 강력하게 분사하며 방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앞서 보건소는 이번 준설 연계 작업을 통해 갈따구의 집단 발생 가능성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유네스코 세계유산 분야 전문기구)이 등재를 권고한 무안군 탄도만 갯벌 전경. 사진제공=무안군청